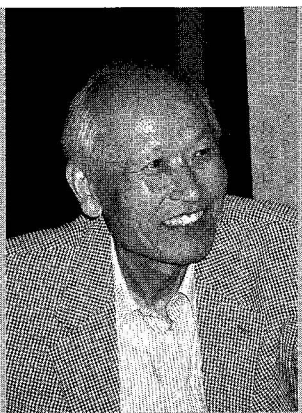
생애로 쓴 기념비

# '역사를 위한 변명'
## 현대사의 굴곡을 살아온 한 문명사가의 삶
### 4·19 시기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합회 대표 강기철 선생

전명혁



**강기철** | 1925년 함경북도 성진 출생. 1947년 서울대 상과대학 중퇴. 1954년 국학대학교 사학과 졸업. 1960~1961년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합회 대표.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구속되어 15년형을 받음. 1968년 7년만에 석방. 1969년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 36인 준비위원회에 참가.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기획 및 운영위원. 1977~1989년 13년간 사회안전법으로 보안 처분. 현재 비교문명연구소 소장. 저서로는 『변모와 화목』, 『토인비와 문명』, 『재지평』(상, 하) 등이 있으며 역서로 『인류사의 전개』, 『역사가의 종교관』, 『시련에 처한 문명』, 『아메리카와 세계혁명』, 『역사의 연구』(상, 하) 등이 있음.

## 1

강기철 선생의 상계동 자택에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이 조금 넘은 저녁 무렵이었다. 사시는 동네는 작은 은행나무 하나가 정감 있게 서 있는 도시 변두리였다. 우리는 허름하고 소박한 집으로 안내됐다. 서재로 들어가니 일본어로 된 자연과학 서적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서적 등 방대한 서적이 천정까지 빼곡이 쌓여 있었다. 선생의 지적 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선생은 벽돌을 직접 쌓고 그 사이에 나무 판자를 얹어 서가를 만드셨다고 한다. 선생은 이 곳에서 지난 70년대 초부터 30년간을 살아오셨다고 한다. 집의 담장도 벽돌을 직접 쌓아 지으셨다고 한다.

"이곳으로 오고 2~3개월 뒤에 안기부 장계장이라는 사람 등이 아예 가족을 데리고 내 집 앞으로 이사를 와 10여 년간 동태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 했어"라고 선생은 말문을 꺼냈다. 대문의 문패에는 강기철 선생과 세 아들의 이름이 같이 걸려 있었다. 이유를 여쭈어보니 "노부부 둘이 큰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애들 문패라도 달아놓으면 마음이 든든한 것도 있고 엿보는 사람들도 함부로 쓸데 없는 생각할 수 없고"라고 말씀하셨다. 선생의 집에 들어서는 입구에 걸려 있는 문패를 처음 볼 때 우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상을 연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문패에는 감시와 탄압의 한국 현대사의 모순과 가족의 저항이 깊게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함경북도 성진이 고향인 강기철 선생은 1951년부터 한양공업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다가 1959년 사직했다. 선생은 10년 가까이 몸담았던 교직을 물러났던 이유를 "현실적 학원의 비리 시정을 계속 권고했으나 한양학원의 교주요,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장이며 한양공과대학의 학장인 김연준 씨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갔지. 끝내 권고 사직 형식으로 자퇴하고 말았어. 김연준 씨는 5·16 쿠데타 당시에도 학원 부정 축재자로서 부정 축재액 8억3천6백억 원의 국고 환수 부과건의 사건이 있었지"라고 했다. 그 뒤 선생은 우석대학[1]의 문화사 강사로 출강하다가 4·19를 맞이하게 됐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이 한반도를 지나간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

---

1 국학대학의 전신, 이후 고려대로 통합됐다.

정권에 대한 불만은 터져 나왔다. 3·15 선거에 앞서 2월 28일 대구에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선거 유세에 당시 정치에 민감한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일요 등교'를 지시하자 이에 반발해 대규모의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이런 움직임은 차츰 확대되어 갔다. 3·15 선거가 유례 없는 부정 선거임이 드러나면서 마산 시청 앞에서는 1만여 명의 시민이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마산상고 1학년에 갓 입학한 김주열의 죽음은 마침내 4·19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4·19 혁명의 물결이 휩쓸었던 40여 년 전 지금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가 탄생했다. 30대 중반의 가장 왕성한 젊은 시절, 선생은 자신의 생애에서 비켜설 수 없는 운명처럼 교원노조의 대표직을 맡게 됐다. 그리고 4·19의 희생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무참히 짓밟은 5·16 쿠데타는 선생의 삶을 짓밟고 말았다.

교육자요 노동운동가이며 역사학자로서 선생의 삶은 고난의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었다. '문명론적 역사관'을 평생의 신념으로 지니고 계신 선생은 4·19를 계기로 교원노조에 참여하고 5·16 군사쿠데타로 15년형을 구형받고 석방 후에도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운동(1969)에 참여하고 민주수호국민협의회(1977)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이를 선생은 '세기의 문화 해체라는 도전에 한 영혼이 응전해가는 신생 창조운동의 준비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 2

● 선생님의 '공소장'[2]을 보니 본적이 함경북도 성진이시던데, 선생님의 가족사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 강기철: 해방되기 2~3년 전에 가족이 다 서울로 왔다. 나는 3남 5녀 가운데 막내로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났고, 개성에서 송도중학교를 다녔

2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0월 '혁명재판소'에서 열린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사건 공소장'

다. 선친이 목사로서 3·1 운동 전에 교회를 세웠다. 부친의 성함이 강학린姜鶴麟인데 부친이 그 당시 함중노회를 창립했다. 그 당시에는 도 단위별로 교구들이 생기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교구가 열대여섯 개밖에 안 될 때였다. 3·1 운동 당시는 3·1 운동 주동자로서 성진 내 고향 일대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주모자로 끌려가 엄청난 곤욕을 겪었다. 형도 무기징역인가 사형인가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 서울에 와가지고 복심 법원을 거쳐 3년형으로 됐다. 부친에게는 1993년 김영삼 정권 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 선생님께서는 국학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방 전후 선생님의 삶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 강기철: 해방이 되는 그해 8월 초 일제의 징병 2기로 함경북도에 있는 나남 19사단에 강제 입영했다가 탈영해 관모산(함경북도 소재)에 입산해 은신 중 그곳에서 8·15 해방을 맞았다. 해방이 된 사실도 며칠 뒤에 알았다. 9월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는데 서울대학교가 생기기 전에 경성경제전문을 일제 때 경성고등상업(약칭: 고상)이라고 불렀는데, 경제전문이 서울대 상과대학이 됐다. 서울대학이 생길 시기 그때는 더 엄청난 이념적 대립이 있었던 시기였다. 이 무렵 나는 서울대학 상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때 상록회라는 독서회에 잠깐 가담했다. 그 무렵 '좌익 사상'은 일반적 분위기였고 자연스럽게 그런 책들을 접하기도 했다.

● 당시 미군정이 제시한 '국대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까?

● 강기철: 그때 서울대학을 반대하는 '국대안 반대운동'[3]이 있었고 나는

3 1946년 8월 미군정이 제시한 '국립서울대 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말한다.

중립에 서 있었다. 그때 반대했던 주체들이 남로당하고 좌익 계통 그리고 공산주의와 관계없지만 좌익적인 성향을 띄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이념의 분열상과 갈등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렬한 대립이었다. 나도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난 본바탕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분단 자체에 대한 회의가 많았다. 이데올로기와는 좀 다르게 종교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이념이 필요하다든지 이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됐다. 분단도 그렇지만 미국과 소련의 세력이 들어 왔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역사적 문제였다.

● 서울대학 상과대학을 1947년에 중퇴하시고 국학대학 사학과에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학과에 입학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 강기철: 1947년 말경 폐결핵으로 몸이 좋지 않아 대학을 등록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됐다. 국학대학에 들어간 것은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경이고 그 무렵 울산제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매형의 권유로 당시 대전에 있던 국학대학에 편입해 1955년에 졸업했다. 당시 나는 H. G. 웰즈, 토인비와 슈팽글러 등의 역사학, 세계 문화사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 4·19 때 교원노조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강기철: 나라는 무에서 출발해 건국의 길에 올랐고, 외세와 민족 분단 상황에서 국가의 초기 형성 과정은 그대로 험난한 형극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삶의 명암에서 언제나 어둠이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교육의 성장도 그 명암의 한 단면일 수밖에 없었다. 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매우 절박했으며 거의 반공개적으로 비리와 부조리와 모순과 부패와 범죄가 특히 사학재단 성장에서 묵인되는 가운데 교육은 양적 급팽창의 길을 걸었다.

내가 복무한 한양학원에서 9년간 목격한 비리는 그대로 사회 생활의 한

축소판이었다. 부정 입학, 부정 졸업, 성적 및 학사 공문서 허위 작성, 허울뿐인 이사회, 변칙 운영, 족벌 동원, 독재 수법, 폭력배 동원, 교육 모리와 축재, 정치와의 교육 유착 등이 거의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교육의 비리는 국가 생존 전략에서 피해갈 수 없는 입시 경쟁을 전제로 하는 법과 제도의 항구적 미비와도 관련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본질과 삶의 근원에도 원천적으로 얽힌 문제라 할 수 있다.

4·19는 하나의 계기였고 일제 침략 때부터 내재한 분노, 이런 인간성의 모순과 사회의 비윤리성과 세기적 문화의 표류와 참교육의 부재라는 '도전'에 대한 하나의 '응전'이었다.

● 4·19 뒤인 5월 22일 서울대 문리대 강당에서 만들어진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에서 선생님께서는 계훈제, 김종길 선생 등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위원장에는 조일문 선생이 선출됐지요? 또 7월에 만들어지는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합회에서는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셨습니다.

● 강기철: 7월에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교원노조를 통일해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합회를 결성했다. 이때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 당시에는 감히 대표자로 나서는 게 정서에 맞지도 않고 그랬다. 진짜 애국자, 명망 있는 사람, 학교에서 존경받는 사람, 세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누군가 하면 고대 총장이었던 김상협 씨하고 조윤제 박사, 정석해 박사(연세대, 일제 때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 이 사람들 모두 민족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들인데 김상협만은 여기서 실격이었다. 조윤제와 정석해는 완전히 유자격자이다. 그 사람들을 앉히게끔 한 것이었다. 그런데 발족을 하자마자 과도 정부에서 '교조는 불법이다, 교조에 가입한 자는 다 파면시킨다' 이렇게 나왔다.

당시 장면 정권은 5월 초에 '서울중고등교원노동조합'이란 어용교조를

만들었고 이후 5월 22일 교육자가 아니라 대중운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계훈제, 김희조 이런 사람들이 대한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일문 씨가 의장에, 내가 부위원장에, 계훈제, 김종길 선생도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런데 이것이 노조의 정식적인 기반이 아니고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결성이 됐다가 7월 17일에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로 정식 발족이 됐다. 이때 내가 조합 대표자가 되고 수석 부위원장이 됐다. 왜 수석부위원장이냐면 거대한 단체의 대표자는 사회에서 명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국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앞의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과도 정부에서 '다 파면시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주춤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조일문 씨가 '족청'[4]과 관계 있다고 해 보류됐다. 조일문 씨는 그때 '족청'과 관계가 깊었는데 내가 볼 때는 '족청'의 하수인은 아니었다.

● 조일문 선생은 9월 말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합회 3차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가 교원노조 투쟁이 격화되자 스스로 이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 강기철: 조일문 선생이 '족청'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조일문은 원래 '족청'에 소속해 있던 사람이니까. 그때는 선생들이 결벽증이 있어서 정치 발언이란 걸 하지를 않으려 했지. 그런데 '족청'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조일문 선생도 그만 뒀는데, 그 다음에 정석해 씨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조일문 씨를 다시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지. 그런데 조일문 씨는 자기가 처음에 배척을 당했으니까 다시 하실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찬성하고 그래서 다시 하게 됐는데 몇 개월 하다가 또 물러났지.

---

4 1946년 10월에 이범석 등이 조직한 조선민족청년단을 일컫는다.

● 당시 교원노조운동은 대구 지역이 강했다고 하는데, 서울 지역은 어떠했습니까?

● 강기철: 4·19 때 교원노조운동은 대구 지역이 주로 강했다고 하지. 물론 대구와 경남 지역 교조운동이 강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지역 교조운동에 참가한 사람도 수천, 수만 명이다. 이 사람들은 대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직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것을 무엇으로 뒷받침할 수 있냐면 '정치정화법'[5]으로 교원노조 관련자 50여 명이 구속됐는데 서울이 그중 14명이었고 경북이 7명, 경남이 8명, 전북이 11명인가 이렇게 된다. 이 숫자는 실질적인 조직의 수와 비례가 되는 것이다. 그때 교조 가입자 수는 내 생각으로는 4만 명이 훨씬 넘었다. 그 증거는 대한교련에서 탈퇴하는 사람이 통계에 따르면 3만5천여 명이었다. 그때 꼭 교조 가입을 하려면 탈퇴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었지만, 3만5천여 명이 탈퇴했고 대체로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교조에 들어 간 것으로 본 것이다.

●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다음날 체포되어 그해 11월 '혁명재판소'에서 15년형을 구형받았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 강기철: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다음날 체포되어 1968년 4월에 7년만에 석방됐다.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헌정은 중단되고 교조는 해체되어 교조 간부 2천여 명이 체포됐다. 5·16 쿠데타 주동자들은 '교조가 장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고 음해했으며, 이 음해 공작에 따라 조합원 다수를 체포했고 주요 간부 54명을 서울에 압송 10여 명을 소위 혁명 재판에 회부했다. 최고 간부 5명에게 중형을 언도하고, 포고령 18호에 의거해 1천5백여 명을 현직에서 불법 추방했다. 그리고 50여

---

5 1962년 3월 16일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정치 활동 정화법'을 공포해 4,374명에 대한 정치 활동을 규제했다.

명을 정치정화법으로 묶어버렸다. 그리고 재판받은 최고 간부들과 파면된 1천5백여 명은 중앙정보부의 요시찰 대상이 되어 10년이고 20년이고 기한 없이 감시 대상이 됐다.

● 선생님께서는 석방 후에도 박정희의 독재에 맞서 삼선개헌반대 투쟁,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등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철: 1969년 이후에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준비위원회에 참가해 480명의 발기인을 규합하고 범국민적 반군사독재 투쟁의 기치를 들었다. 이 투쟁은 정치정화법에서 해금된 인사 중심으로 처음 시작했다. 그리고 1971년에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참여해 기획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그해 대통령 선거와 1972년 총선에서 다수의 대학생 선거참관인단을 동원하는 등 활동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발족은 군사독재 타도의 방향을 잡아준 분수령을 이루는 운동이었다. 함석헌 선생, 장준하, 계훈제, 리영희 교수 등이 다 들어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분단에서 오는 집단 이기주의하고는 선을 끊은 사람들이다. 내가 교원노동조합 대표로서 교원 민주화운동을 한 것, 삼선개헌반대운동,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기획운영위원 활동이 모두 민주화운동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에서 일순위로 평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기각을 시켰다. 계훈제 씨는 기각을 시켰다가 다시 인정됐다.

● 선생님께서는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1977년부터 10여 년 동안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 강기철: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만든 사회안전법이 폐기되는 1989년까지 13년간 보안처분에 따른 거주 제한, 보호관찰, 해외여행 금지, 공민권과 사회 활동을 박탈당하는 등 생명의 존엄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노예 문서에 시달려왔다. 사회안전법은 75년에 통과된, 과거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

같은 것이었다. 군사문화에 투항을 하면 당장 풀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자기 인격체로서 자기 의견을 내놓으면 언제든지 괘씸죄로 다시 잡아들였고 이것을 거절하면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나를 집어넣지는 못했다. 그때 해당자가 1만 몇천 명이었다. 이런 노예 문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 문제를 재판도 다시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김대중 씨는 자기 문제와 광주 사건은 법을 만들어 해결하고 12·12, 10월 유신과 박정희에 관한 것은 다 덮어 놓고 있었다.

● 1987년 7월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갑자기 보안처분이 해제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강기철: 1987년에 정보부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투항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했다. 쓰지도 않은 준법서약서와 복역행적서, 신원보증서가 작성됐고, 내가 보안처분면제 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처럼 됐다. 그 해에는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됐는데, 그때 내가 투항을 안 했으니까 뭔가 결정적인 혁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투항한 문서를 만들어 갖고 사전에 나를 배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 선생님께서 '전향서'를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강기철: 교원노동조합운동을 했는데 무슨 전향서를 쓴다는 말인가.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박정희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강요한 거다. 그 당시에는 다 정치적인 투항서를 써야만 복귀를 시켰지, 그렇지 않으면 복귀를 시켜주지 않았다. 박정희는 그런데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이다. 꼭 상대에게 정치적 항복을 받아내려 한다.

● 현재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해 선생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 강기철: 노동조합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했다. 그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 떡 값 찾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네 집단 이해의 균형을 잡는 것 이상으로 넘어설 수는 없다. 이해 추구의 균형이 잡히는 것이 민주화지만 그것은 진리나 진실하고는 관계가 없다. 교원노조운동도 그런 측면의 하나였지만, 함께 민주화운동을 한 내부에서도 경쟁이 있고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하고 자기 명성을 높이려 한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누구나의 인지상정이다. 나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상응해 '희생권' 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김대중 씨가 집권을 하고 나니까 민주화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정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고 앞으로 내가 뭔가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겠지만 분단 상태 속에서는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분단의 집단 이기주의의 한 과실을 얻어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다.

● 선생님께서는 역사학자로서 여러 대학에서 세계 문화사를 강의하셨고,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시련에 처한 문명』 등의 역서와 『토인비와 문명』 등의 저서를 내는 등 그 동안 많은 저서와 역서를 내셨는데, 선생님의 '문명론적 역사관' 은 어떤 것인가요?

● 강기철: 세계는 탈냉전 탈이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양면성을 지닌 시대 조짐이다. 그것은 또 한편 다양한 인간 욕망의 분출이 고도화의 극치에서 진리와 교차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대결의 경쟁에서 협조의 경쟁으로, 독단의 이념 추구에서 공관적共觀的 사물관으로, 배타적 생활에서 화해의 공존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일성 추구의 극대화는 진리 공유와 교차하고 있고, 종교의 유아독존은 대화와 교차하고 있으며, 경

제적 낭비와 유행 생활의 극대화는 예술과 교차하고 있다. 학문 추구의 극대화는 후-학문 단계와 교차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의 극대화는 인문과학의 필요와 교차하고 있다. 세속 문화 가치의 극대화는 정신 문화 가치의 재건과 교차하고 있으며, 절망의 극치는 활로와 교차하고 있다. 탈냉전 탈이념은 제2의 우주관을 맞이할 정지 작업의 여건 조성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인간 성숙의 길이 열리며 혁명 과업을 다시 수행하고 인간을 영원히 해방할 수도 있다.

● 선생님께서는 '신인류' 와 '완성 인류' 의 도래를 희망하시면서 인간 인식의 변혁이 중요하고 필연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사회 개혁의 과정이 종결됐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회의 구조적 개혁 과정과 인간 인식의 도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 강기철: 인류사의 태고적부터 사회의 구조 개혁의 과정은 곧 인류의 해방 과정이었고 자유의 증진 과정이었다. 사회 개혁 과정은 인류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사회의 구조적 개혁 과정이 종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구조 개혁 과정은 일정한 교착기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오늘날 역사의 의미를 상실하고 영혼이 방황하는 '문화 해체' 의 위기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화 등의 사회 개혁 자체가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문명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인간의 형성과 출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사회 개혁과 인간의 영성적 해방의 관계를 말하고 싶다. 일제 식민지에서의 항일 투쟁이 국권을 회복하고 나면,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와의 민주화 투쟁이 평화적 정권을 교체시키고 나면, 사회 정의를 위한 노사 간의 투쟁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나면,

민주화의 대장정은 양 당사자 간의 집단 이기주의적 이해 균형이 유지되는 선에서 멈춰 버린다. 이것이 세속 문화에 물들어가는 지구촌 사회 심리의 민주적 표현 방식이다. 이런 상태는 역사적 방향의 상실과 세속을 초월한 가치의 실종, 문화 해체 징후의 만연과 같은 '문명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이상은 크게 말하면 '민주화'였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화는 대장정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진리 구현의 대도大道 속에서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계속 인류 의식 구조의 성숙과 더불어 심화되어 가는 영혼의 호흡이다. 인류는 세속의 자유를 넘어 영성의 자유를 추구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역사관의 인식과 새로운 인간관의 정립을 통해 윤리적 독립체로서의 인간이 완성되어 갈 것이다.

● 선생님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새로운 역사관을 '공관적 사물관'이라 부르셨고, 이를 습득하게 된 인류를 '신인류-완성 인류'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공관적 사물관은 어떤 개념입니까?

● 강기철: 공관적 사물관은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달라도 결국 하나의 실재에 이르는 각기 다른 접근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명론은 평행선을 긋는 대립 개념과 주장에 대해 교통 정리를 시도하고 역할 분담의 위치를 재배정한다. 유물론과 유심론, 창조론과 진화론, 일원론과 다원론 등의 교통 정리를 시도한다. 공관적 사물관은 객관과 객체를 추구하는 과학적 사물관의 입장과는 다르다. 엄격한 의미에서 객관과 객체 추구는 인간 인식에 허용되기 어렵다. 공관적 사물관은 과학적 사물관을 하위의 접근 방법으로 자리매김한다. 공관적 사물관을 처음 시도한 자는 아놀드 토인비였다.

● 얼핏 듣기에는 난해한 것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은 공관적 사물관을

인류 모두가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필연적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강기철: 가능하고 필연적이라 생각한다. 우선 현시대의 상황적 배경이 그러하다. 현재의 기술적 발전과 인터넷 문화를 생각해보라. 이미 새로운 시대의 징후가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식이 지구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가? '인간 단계 의식 구조' 와 '후-인간 단계 의식구조' 와 '영인 단계 의식 구조' 를 공유하는 신인류-완성 인류는 현재 인터넷 교실에서 탄생하고 있으며, 이를 학습하고 있는 신인류-완성 인류의 후보자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인류의 교사라는 자부심이 생기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이웃에 진리를 전파하려는 소명감에 사로잡힐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공관적 사물관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생소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실용적인 물질 문명이 강요한 '객관적 기준' 이라는 지식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객관적 기준' 이란 것도 과거의 문명사가 강요한 제한된 지식에 불과하다. 또한 원래 '객관성' 이란 '합의된 집단 주관' 이라 해야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의 차원은 주관의 자유에 따라 무한히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과학과 객관에 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출하기만 한다면, 이 공관적 사물관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수준으로 끌어내린 일반 실험' 의 예[6]가 이를 증

6 강기철 선생은 새로운 문명사는, '상식 수준으로 끌어내린 일반 실험' 을 전제로 해서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신다. 선생께서 즐겨 드시는 예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겠다. 이 '일반 실험' 의 취지는 기존의 '과학' 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 인식의 대전환과 인간 존재의 대변혁의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①방위: a. 인류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 타고 태양계 행성을 날아갈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우주선이 지구 주위 적도상을 지구자전 반대 방향으로 10년간 돌기 시작했다고 하자.

명한다고 생각한다.

●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보는 토인비의 '문명사관'에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 강기철: 토인비는 나의 학문적 스승이다. 역사의 추진력은 삶과 역사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전개되는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이다. 하나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면 그 응전은 새로운 도전을 낳고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면 그 응전은 또 새로운 도전을 낳는다. 도전-응전의 연속이 역사다. 계속 응전에 성공할 때 사회는 성장한다. 이때 성장은 인간다운 품위

---

그리고 일회전 소요 시간은 20시간이라고 해보자. 10년이 다 차가는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 온 1, 2학년 어린이들이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봤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해는 언제나 서쪽에서 떠올라오며 하루는 정확히 20시간이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오르고 하루는 24시간이었다고 하셨다.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b. 인류는 춘분날에 다들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기로 한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과 태양을 연결하는 직선을 긋고 그 선을 태양 밖 멀리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인류는 추분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는 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태양을 바라보는 지구의 위치는 춘분날 지구 중심과 태양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은 그 연장선상에 와 있으며 따라서 태양은 정확히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우주: 우주 속에는 본래 동서남북, 상하, 좌우, 선후 등 그런 방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용성에서 인류는 태고 이래 이와 같은 방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해왔으며, 그것은 점차 고정관념이 아닌 사실과 진실과 진리로서 정착하고 말았다.

③ 측량: 우리는 제주도의 해안선을 실측하기로 한다. 팀 셋을 편성해 제주도에 보내 실측하게 한다. 한 팀은 10센티미터의 자로 실측해가며, 다음 팀은 1미터의 자로 실측해간다. 세 번째 팀은 10미터의 자로 측정해간다. 3팀이 실측한 제주도 해안선의 길이가 동일할까? 아니다. 자의 단위가 다를 때마다 그 객관적 길이는 다르게 나오며 무한가지로 증폭한다. 왜냐하면 둘레의 측량은 언제나 불확정 곡선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④ 연산: 우리는 모두 5×5=25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5×5=25가 아니고 5×5=121이라든가 5×5=41이라든가 5×5=34라고 하면 다들 놀랄 것이다. 그러면 25가 아닌 답은 모두 오류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지구에서는 실용성의 관점에서 10진법을 적용한 답만 정답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이미 지구에서도 컴퓨터에서 2진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다른 행성에서 온 인류가 답을 적는다면 결과는 무한히 다를 것이다. 5×5=121은 4진법의 답이고, 5×5=41의 답은 6진법의 답이고 5×5=34는 7진법의 답이다.

를 조성하는 사회의 질적 승화의 향상을 뜻하고 있다. 문명론에서 말하는 성장은 상식적 발전이나 진보나 성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의 계속은 물질적 정신적 영적 승화로 전이 轉移 하는 승화의 성장이고 인간과 사회를 점차 공동체 사회로 승화시킨다.

## 3

이제 80을 바라보는 연세임에도 선생의 음성은 카랑카랑하고 눈동자는 맑았다. 선생은 지금도 일요일이면 예외 없이 여의도 공원과 올림픽 공원을 오가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등산과 노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신다. 또한 젊은이 못지 않게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신다.

"벽돌 쌓는 건 절반 이상은 내가 직접 쌓고 못질을 해야 되는 것은 목수들 시키고 온돌도

---

⑤ 경기: 태평양에 거대한 호화선을 띄우고 동쪽을 향해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항해하게 한다. 그 내부에 월드컵의 경기장을 설치하고 경기를 개최한다. 그러면 지상에서와 꼭 같이 아무 차질이 없이 경기는 진행한다. 이 호화선 내부에 거대한 호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제2의 호화선을 띄운다. 남쪽을 향해 시속 15킬로미터로 항해한다. 그 속에 월드컵 경기장을 설치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물론 아무 차질이 없이 지상에서와 꼭 같이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제2의 호화선 안에 다시 거대한 호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제3의 호화선을 띄운다. 그리고 그 호화선은 북쪽을 향해 매시간 20킬로의 속도로 항진한다. 그 안에서 월드컵 경기를 해도 역시 아무 지장이 없이 지상에서와 같이 경기를 치를 수가 있다. 제3의 호화선 안에 다시 거대한 호수를 설치하고 제4의 호화선을 띄우며 서쪽으로 매시30킬로미터의 속도로 항진하게 한다. 그 속에서 월드컵 시합을 해도 역시 지상에서와 꼭 같이 경기를 치를 수가 있다.

⑥ 내벽관과 외벽관: 우리는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밖의 형태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외벽관)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안의 형태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내벽관)으로 사물을 보면 경험적 우주 시각의 확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늘에 띄운 애드벌룬을 그 안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신체의 장기를 내시경을 통해 본다든가 하는 것이 예이다.

⑦ 실체의 관계성: 우주 속의 모든 만물의 실체들은 남김없이 일정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규정된다. 그 관계를 해소하고 나면 무로 돌아가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다. 이 관계는 고정적인 것도 불변의 것도 아니며 더 큰 범위와 더 작은 범위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무한히 변전할 수 있다. 따라서 유有의 존립 근거는 무無 속에서의 새로운 생성이다. 세포 조직은 세포와 세포의 일정한 관계 유지에서, 세포는 단백질과 단백질의 일정한 관계 유지에서,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일정한 관계 유지에서, 아미노산은 뉴클레오티드와 뉴클레오티드의 일정한 관계 유지에서, 뉴클레오티드는 인, 산, 염기, 수소의 일정한 관계 유지에서 나타나 존립하다가 그 일정한 관계를 해소하면 무로 돌아가는 창조물들이다.

직접 내가 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노동을 해요. 노동이라는 것은 건강 관리에 아주 중요해요. 무아지경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선생의 '건강 비법'은 끊임없이 사고 思考 하고 노동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 삶의 태도였다.

선생은 필자가 교원노조에 대해 계속해 물으려 하자 '주변부 기억'이라고 하시며, 평생의 연구 주제이며 관심사인 '문명론'에 대해 1시간 가까이 강의를 하셨다. "풀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면 그게 도전인데 그것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거기에 비례해 엄청난 창조력이 분출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역사를 좌우하는 것은 창조력이지. 창조력이 분출되어 돌파해 가는 것이 역사의 참다운 진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지…"

4·19 당시 정권이 교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그해 8월 교원노조 경상북도연합회 간부 25명을 지방 벽지로 인사 이동시키자, 교원노조는 전국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사퇴 선언'으로 맞섰다. 이때 선생은 교원노조의 대표로서 "허정 과도 정부는 4월 혁명의 거룩한 학생 의거 정신을 망각하고 이승만 독재를 연장시키는 데 급급해 교원노조를 불법 탄압하려 들었으니 여기 교원 동지들은 총궐기해 교육의 자주성을 사수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 싸워야 한다"고 격려 연설을 하기도 했다.[7] 선생이 언급한 '희생권'이란 이런 선생의 투쟁 경험과 삶 속에서 나온 것이리라.

4·19의 열기 속에서 치러진 7·29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이란 '2대 악법'을 제정하는 등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억누르려 했다. 교원노조는 이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고 노조 결성의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쿠데타 세력은 교원노조 조합원 1천5백여 명을 '용공분자'로 몰아 체포하고 그들을 교직에서 추방해 버렸다. 그들은 실로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피해자였다.

선생은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했고, 출옥 후에도 박정희 유신 체제에 맞서

7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p. 142.

싸우다가 다시 사회안전법에 묶여 13년의 세월을 감시 속에서 살아왔다. 고립된 삶 속에서 선생은 평생의 화두요 탐구 주제인 토인비의 역사 연구와 문명론 등에 대해 많은 저서와 역서를 내셨다.

선생은 1994년 7월에는 '5·16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2001년에는 선생 자신을 비롯한 1천5백여 교원노조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교원노조 사건과 관련하여 투옥된 것은 삼선 개헌 발의일(69년 8월 7일) 이전의 일이므로 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선생은 2002년 5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필적까지 위조해 제출된 '보안처분면제 신청서'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의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기각되고 말았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 대통령 정권인수위원회에 선생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국민 정책 제안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선생은 비교문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류의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계속하며 새로운 역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날의 잘못된 역사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현실의 '도전'에 대한 강기철 선생의 '응전', 아니 '기억 투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전명혁** lette@kdemo.or.kr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사료관리과장, 역사학연구소 부소장 겸 연구실장, 전국대학강사노조 5대위원장 역임. 박사학위논문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 운동 연구」.